

大學圖書館에 資料가 不足하다

—장서 대 부족……5만권 이하 13개 大學—

강 철 원
(조선일보)

「그 대학을 알려면 도서관을 보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이 그 대학의 현주소를 읽게 해주는 바로미터란 뜻이다.

대학의 주된 기능인 학문의 연구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그곳에 있을뿐 아니라 연구할 수 있는 장소(열람실)도 함께 갖추고 있다. 대학인들의 연구결과는 또 도서관에 계속 장서 혹은 문헌으로 축적되면서 후진에 의한 학문적인 재생산을 기다리게 된다.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일수록 값진 장서가 많고, 그에 상응한 학문적 깊이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하버드大 9백 60만권 소장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해방후에 출범한 짧은 연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눈부실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도서관에 관한한, 시설 장서 이용 상태 등 모든면에서 낙제점에 가깝다. 서울대등 몇몇 대학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이들 역시 세계수준의 명문대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우선 장서부터가 너무 빈약하다. 장서수에 있어 으뜸은 서울대로 1백 15만권이요 다음이 慶熙大의 52만권, 高麗大의 50만권, 延世大의 48만권 등이다. 이밖의 서울 시내 종합대학들은 대체로 10만~30만권 정도이고, 단과대학들은 10만권 미만이 대부분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조사한 81년말 현재의 서울시내 38개대학 도서관장서현황을 보면, 10만권 이하가 21개대학이고 5만권이하도 13개 대학에 이른다. 종합대학인 誠信女大와 규모가 큰 단과대학인 世宗大가 각각 9만여권이요 漢城大 3만여권, 韓神大 2만여권의 분포이다.

이나마 대학마다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古書가 상당수에 이른다. 서울大의 경우 규장각도서, 정리되지 않은 古書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책은 장

서의 절반정도인 58만여권이다.

81년 현재 美하버드大의 장서량은 9백 60만권, 예일大는 6백 90만권, 캘리포니아 버클리大는 4백 90만권이고 日本東京大의 장서는 5백만권(79년 현재)이다. 이들 대학의 장서는 서울大등 우리나라 20개국립대학(10개 종합대 10개 단과대)의 총장서량 2백 46만권보다도 훨씬 많지른다.

실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독서실」로서의 구실 밖에 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사고있다. 과제를 처리나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문헌을 신청하려 해도 도서관에 소장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학부 학생들보다 더욱 깊이 있는 논문이 요구되는 대학원생들의 불편은 더욱 크다.

2. 研究기여도 10%였다

올해 모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L씨는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를 작성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었다. L씨가 모교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정부기관의 통계들과 해당분야 교수의 논문 몇편 정도였다. 그것만으로 알맹이 있는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6개월에 걸쳐 타대학 도서관 교수연구실 외부연구기관 등을 해맨 끝에 1백 10여편의 도서논문 등을 입수, 어렵게 논문을 완성시킬 수는 있었지만, 본교 도서관자료의 기여도는 10%에 머물렀다.

최근 도서관을 찾는 대학원생이 휴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동기가 졸업정원제에 의한 탈락공포 때문이건, 순수학문탐구의 차원이건 간에 이같은 대학열기는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대열을 수용할 좌석이 모자라 대학마다 고민이다.

서울大冠岳캠퍼스의 경우를 보자. 평상시의 중앙도서관 개관시간은 오전 7시 30분. 이때쯤이면 80~1백여 학생들이 미리와서 대기한다. 오전 10시쯤이면 좌석 3천 8백 72석의 대규모 도서관이 모두 채워진다. 그 이후에 좌석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먼저 온 학생이 하루 종일 독점하기 때문이다.

강의시간, 점심시간이 배도 책이나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근접하지 못한다.

3. 형편좋은 학교 7명당 1석

시험이 임박해지면 자리다툼은 극에 달한다. 시험을 2주일정도 남겨놓은 즈음이면 새벽 4시부터 학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학교측은 6시에 문을 연다. 그리고 1시

간후면 모든 좌석이 채워진다. 좌석난은 다른 대학의 경우 더 심한 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도서관 열람실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서관 찾는 일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서울大보다 좌석난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80년 12월 문교부가 각 대학에 시달한 「대학도서관 운영개선지침」을 보면 열람석을 학생정원의 20%이상(5명당 1석) 갖추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아직 死文化된 상태이다. 형편이 가장 나은 서울大가 7명당 1석이고, 延世大는 3천 2백 35석 高麗大는 3천 3백 16석으로 각각 7.7명당 1석꼴이다. S女大의 경우 학생수 1천8백 여명에 열람석 1백 86, K大는 1천 2백여명에 열람석 1백 20석으로 10명당 1석수준이다. 그나마 K大의 도서관은 50여명에 열람석만을 뺄뺄이 들여놓아 흡사 시중의 독서실을 연상시킨다.

4. 최신 연구자료 구입 태만

이같은 대학도서관의 어두운 실태는 적어도 당분간은 개선될 전망도 없어 뜻있는 대학인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용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아주 미약하다. 열람석의 부족도 문제지만 대학 도서관이 자료센터의 구실을 하지 못할 때는 그 존립의 의의조차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나간 문헌은 고사하고라도 최신자료마저 축적시키지 못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자료는 모두 6만 2천여종이며, 이 가운데 최소한 10%는 확보해야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서울大의 경우 작년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5천 9백 10종을 구입, 미흡하나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대학은 뚝 떨어진다. 81년을 기준, 延世大가 1천 5백 67종, 高麗大가 1천 1백 12종이고 그밖의 경우는 대체로 3백~5백종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대학은 연간도서구입비가 1백만원선이어서 사실상 도서관이 자료수집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5. 불필요 한대출禁止 많아

전국도서관대회 발표논문에 의하면 외국대학의 연간도서구입비를 보면 東京大 33억원, 하버드大 23억원, 예일大 17억원, 버클리大 16억원 등이다. 도서관의 대출방식이 너무 경직돼 있어 개선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공산권의 불은서적들이 인기

받은 교수에 한해 「관내대출」되는 것은 우리의 특수사정상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대출금지의 기준이 애매하거나 불필요하게 「금지」하는 경우도 많아 소외된 대학인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모대학 C씨의 박사학위논문 「소의론 연구」는 시중에 단행본으로 나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당해 대학에서는 그 원본을 불온서적으로 분류,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E.H. 카」의 「소비에트러시아史」는 Y대에서는 대출해 주고 있으나 모대학에서는 금지돼 있다. 역시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도 시판되고 있지만 모대학에서는 아직까지 불온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학술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분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서직의 전문화도 시급히 추구해야할 과제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양적인 팽창일변도에서 탈피, 질적향상을 함께 도모하려 한다면 도서관의 기능부터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로 성장한
폐사는 항상 여러분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쿠폰 대행기관
- 단행본 및 학술잡지
- 구미서적 수입판매

科學書籍센터

SCIENCE PUBLICATIONS CENTER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1街21番地 光化門私書函333号

電話 (723)6719 (725)0934